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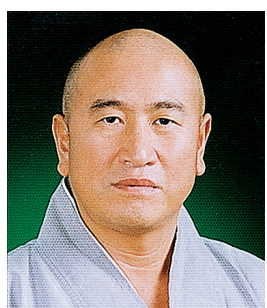
무공저

구경꾼 효과

인간과 인간은 본래 어느 정도의 유대감을 갖는 것일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부딪힌 것을 보면 마음이 쓰이고,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질 것 같으면 저도 모르게 달려가 구하게 되는 것, 인간이 인간에 대해 갖는 근원적 끌림이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가 깊어지면서 사회는 인간 중심에서 돈이나 권력 등 사물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만큼 사회 구성원의 소외와 비인간화는 심각해졌다. 남과의 연결의식이 약하니 방관이 뭘에 뻐나?

타자의 고통에 만지만큼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철저한 방관과 무관심, 사람이 사물로 취급되는 최악의 성폭력 사건이 3년전 미국에서 발생해 전세계적인 충격을 주었다. 필라델피아

객들이 어째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선 지적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목격자가 많아서 그 여성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책임이 나뉘기에 목격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책임감을 적게 느끼게 되고, 결국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목격자가 한 사람 이상이 되면 도움을 줄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슬픈 결론이다. 이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한다. 더 알기 쉽게 '구경꾼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방관자 효과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서겠지 하고 서로 미루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상충된 욕구가 있다. 남



중상
(청계사 회주)

사람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돕지않아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아픔을 함께 해야할 때

통근열차 안에서 밤 9시15분부터 40여 분 동안 노숙자 남성이 옆자리의 여성 승객을 성희롱, 성추행하다가 결국은 강간까지 했는데도 승객 중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은 열차 내 감시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 동영상에 따르면, 열차 안에는 꽤 많은 승객들이 있었고, 여성은 계속 가해자를 밀쳐내며 저항했다. 성추행의 짧은 시간 동안 여성을 위해 나선 사람은 없었고, 대신 저마다 셀폰을 사건현장 쪽으로 치켜든 모습이 잡혀 있다. 셀폰의 시대에 '흔치 않은 구경거리'라며 카메라를 들이댔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이 사건은 지나가는 열차 안을 우연히 들여다본 교통국 직원이 신고한 덕분에 끝이 났다.

열차 안이라는 공공의 닫힌 공간에서 여성이 짓밟히는 광경을 보고도 승

을 짓밟고라도 살아남으려는 이기적 본능 그리고 남과 하나가 되어 고품을 면하려는 이타적 욕구이다. 나누고 내어주고, 타인을 위해 가까이 희생하는 성향이다. 두 가지 욕구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가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남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그의 행복까지 기원하는 사랑이 담긴 것이 바로 자애심(慈愛心)이다. 초기경전(수타니파타)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고 말한다. 관심과 용기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더 고립될 것이다. 더 이상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아픔을 함께 해야 할 때다.

불자의 자세와 예절 배우며 부처님 가르침 실천

불교대학 수강생 108배와 사찰 탐방

지난 3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청계사 불교대학 수강생 51명이 야외법당에서 108배 참회법회를 봉행했다.

1부 지도강사 명원스님의 목탁에 맞춰 야외법당(수미단)에서 모두 한마음으로 108 참회문에 맞춰 한 배 한 배 정성을 다

해 절을 한 후, 교학처(총무 연문심)에서 준비한 떡과 차를 마시며 차담도 나누었다.

2부 사찰 경내를 돌아보며 수미단과 각전각, 와불전, 동종, 부도전 등 탐방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불도를 닦고 깨달음을

구하는 사찰의 의미와 청계사의 소중한 문화재를 돌아보며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 선불장에서 영상을 시청하며 불자의 자세와 예절, 사찰예의와 예경(절하는 법), 불교입문 수업이 진행됐다.

명원스님은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경전공부, 기도정진, 선 수행특강, 신행활동을 돕는 실천 중심의 교육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불자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을 마쳤다.

(글 서용화)



야외법당에서 명원스님의 지도 하에 108배 정진.



부도탑 탐방중인 수강생들.

생활의 지혜

이야기 백유경

어리석은 수비지기

지식, 인생을 빠르게 사는 중요한 양식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지식적인 문제는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냉정히 관찰해 보면 지혜와 지식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은 왜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지 몰랐기 때문에 신비롭기만 했다. 지금 우리는 태양계의 구조를 알고 지구가 태양의 중력을 끌고 있으면서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단순한 과학적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사물을 관조하고 빠르게 보는 지혜로운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과 육신

옛날 암, 수두 마리의 짐비들이 한 동우리에 살면서 익은 과일을 가져다 동우리에 채워 두었다.

그 뒤 과일이 말라 차츰 줄어들어 반 동우리밖에 남지 않았다.

수컷은 성을 내며 암컷에게 말했다.

"과일을 모으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왜 혼자서 먹고 반만 남았느냐?"

암컷이 대답하였다.

"나는 먹지 않았습니니다. 과일이 저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컷은 믿지 않고 성을 내어 암컷을 보고 말했다.

"내가 혼자 먹지 않았으면 왜 줄어들었겠느냐?"

수컷은 곧 주둥이로 암컷을 쪼아 죽였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큰비가 내리, 과일은 차츰 불어나 전과 같이 되었다.

수컷은 그것을 보고 비로소 후회하였다.

"실은 그가 먹은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망령되어 그를 죽였다"라고.

수컷은 곧 슬피 울면서 암컷을 불렀다.

"너는 어디로 갔느냐?"

(예설) 범부들도 그와 같다. 뒤바뀐 생각을 마음에 품고 망령되어 쾌락을 누리면서, 덧없음을 보지 않고 중한 계율을 범하다가 뒤에 가서 후회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그리하여 슬피 탄식하였으니 그것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이 하지는 대로 노는 학생을 비교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만큼 원하는 일을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될 확률이 높

으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못 하는 만큼 일할 기회가 적은 것이며 좋은 직장을 가질 확률이 낮아진다. 지식은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데 중요한 양식이다.

범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범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범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정진희 500부
 - ♣ 안양교도소 박경선 50부, 박유진 150부
 - ♣ 수원구치소 김향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조수환 50부, 김정중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손영호 50부, 김대희 50부
-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산신기도 안내

기도를 통해 다급 생래의 업장을 소멸하시고 소구 소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산신기도를 봉행합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입 재 : 2024년 4월 22일(음력 3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철 야 : 2024년 4월 23일(음력 3월 15일) 화요일 저녁 9시부터~새벽 4시
- 회 향 : 2024년 4월 24일(음력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기도비 : 5만원
- 온라인 : 109-058786-01-413(기업은행 청계사)

봄맞이 성지순례

관음회에서 주최하는 봄 성지순례가 아래와 같이 봉행됩니다. 불법이 깃든 성지를 찾아 간절한 신심으로 부처님의 복덕과 선근 인연의 소중한 씨앗을 심고 봄꽃들이 만발한 산사를 찾는 성지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 일 시 :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오전 7시 출발
- 순례지 : 여수 향일암
- 동참금 : 7만원
- 출발장소 : 인덕원역 3번출구 진참지암
- 접수처 : 종무소 031-426-2348, 2221
관음회장(법률성) 010-9793-3654
관음회총무(수경심) 010-3331-8262

불기 2568년(2024년) 연등접수 안내

무명으로 가득찬 어두운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처럼 밝아지고 따뜻한 마음이 불빛처럼 퍼져나가 온 세상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부처님께 전 재산을 모아 등불 공양을 올린 난다처럼 성심을 다해 꺼지지 않는 초파일 등불 공양을 밝히시어 복덕과 공덕을 지으시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

황금대등	3,000,000원
설법전(대등)	1,200,000원
황금등(사업등)	1,000,000원
극락보전 지혜등	200,000원
극락보전 가족등	150,000원
삼성각 가족등	150,000원
지장전 영가등	150,000원
설법전 가족등	150,000원
백일등	50,000원
하루등	30,000원

계좌번호 청계사 기업은행 109-058786-01-412
접수 및 안내 031-426-2348 (종무소)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산 청계사 주지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산 청계사 주지 성행 합장

청계사 관음회

절요

절요는 강원 사지과의 교과목으로 중요한 불교 입문서이다. 원제는『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이다. 고려 때 지눌스님이 당나라 종일 스님의 <법집별행록>의 복잡한 내용을 줄이고 자신의 견해를 써 넣어 편집했다. 지눌스님이 입적하기 9개월 전쯤 마지막으로 펴낸 책으로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에 이르는 참선수행의 올바른 과정을 담고 있다. 후학들에게 부처님의 마음자리 공적영지를 단숨에 알고, 그 길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차근차근 나아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돈오점수를 강조하며 정혜쌍수를 역설하였다. <편집자주>

全揀門과 全收門

1.法性圓融
 그러므로 이 마음의 성품에는 완전히 가리는 문(全揀門)과 완전히 거두는 문(全收門)이 있으니 마음을 닦는 이는 간절히 모름지기 살펴야 한다.
 저 宗密스님이 이르되 “하나의 진실한 心性을 더럽고 깨끗한 모든 법에 대하여 완전히 가리기도하고 거둘수도 있다.” 완전히 가린다고 하는 것은 다만 본체를 밝혀 신령스런 얹어 곧 이 마음의 성품이고 그 이외의 것은 다 허망한 것임을 바로 가르킨다.
 그러므로 이르되, “識으로 알 바가 아니고 또 마음의 경계도 아니다. 내지 性도 相도 아니며 부처도 중생도 아니다.
 四句를 떠나고 百非가 끊어졌다.하고 완전히 거둔다는 것은 더럽고 깨끗한 모든 법이 이 마음 아닌 것이 없다.
 마음이 미혹한 까닭에 망령스럽게 흑업과 내지 四生(胎卵濕化) 六道(지옥, 아귀, 축생, 인연, 아수라) 더러운 국도의 경계를 일으키고 마음을 깨달으므로 본체로 초차 일어나 四

과 모양이 결림이 없어 비로소 능히 일체법에 모두 머무른 바가 없을 것이다.
 오직 이라야만 了義라 할 수 있다”하니 이라므로 마땅히 알라.
 만일 하나의 참 마음의 성품을 담박 깨닫지 못하고 다만 그 가운데서 일체를 가리기만 하면 그것은 말을 떠난 견해에 걸려 있을 것이고, 일체를 거두기만 하여도 또 원용의 견해에 걸리게 될 것이니 모두 의해에 떨어져 깨달아 들어가는 어렵다.
 만일 거두고 가리기에 자재하고 성품과 모양이 결림이 없으려면 모름지기 한 마음을 담박 깨달을 것이고 만일 깨닫고자 하면 간절히 모름지기 의해에 걸리지 말라.
 이라므로 결리면 비록 거두거나 가라더라도 모두 그르다. 깨달은 문에 당하여 방편을 아주 없애버리는 것은 오직 완전히 가리는 것 이라야 아주 가까운 것이 된다.
 그러므로 본체를 밝혀 바로 靈知를 가르키는 것은 완전히 가리는 門에 있다.
 그러므로 알라. 本分宗師들이 단련하는 깨

참성품은 깊고 깊어 제 성품을 지키지 않고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

等(慈悲喜捨) 六道(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내지 四辯(力과 묘한 몸과 깨끗한 세계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미 이 마음이 모든 법을 일으킴으로 법과 법이 모두 곧 참 마음이라. 어떤 사람이 꿈에 나타난 일이 일일이 모두 사람이며 금으로 그릇을 만들 때 그릇 그릇이 모두 금이며 거울인 것 같다.
 꿈은 妄想業報에 비유하고 거울은 修行에 비유하고 그림자는 應化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華嚴經에 이르되 “모든 법이 곧 마음의 제 성품인줄 알라. 지혜의 몸(慧身)을 성취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말미암지 않는다”하고 起信論에 이르되 “三계는 거짓이다. 오직 마음이 지는 것이다. 마음을 여의면 곧 六塵境界가 없다 이라므로 모든 법이 거울 가운데 그림자와 같다” 하고 楞嚴經에 이르되 “寂寂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말한 것이고 한 마음은 如來藏을 말한 것이니 그것은 능히 일체 세계의 생을 두루 만들고 선도 짓고 악도 지어서 괴로움을 받고 즐거움을 받되 그 因과 함께 한다”하시니 그러므로 알라.
 일체는 마음 아닌 것이 없다.
 바로 참 마음의 본체를 나타내야만 비로소 그 가운데서 일체를 가지고 일체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두고 가리기에 자재하고 성품

달음의 門에는 도한 靈知까지 없애는 것이 가장 묘한 것이 된다.
 만일 意解를 뚫고 벗어나 완전히 거두고 완전히 揀擇하면 자재하여 결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알라. 깨달은 바 영지의 마음이 곧 순진한 性無라 마땅히 가히 말하지 못한다.
 능히 인연을 따라 四生 六道와 및 묘한 몸 깨끗한 세계 등의 더럽고 깨끗한 모든 법을 나타내나니 그러므로 緣起라 부른다.
 일어도 일음바가 없는 것, 이 이름이 생각할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르되 “법과 법이 완전히 참 마음이므로 저 그림자와 그림자가 모두 거울인 것 같다”하였다.
 이렇게만 한다면 마음을 깨달은 뒤에 건립하고 소탕하는 것이 무슨 妨碍가 있겠는가.
 저 義相法師 法性偏에 이르되, “법의 성품이 원용하여 두 모양이 없어서 모든 법이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하다. 이들도 떠나고 모양도 떠나 일체가 다 끊어지니 翳를 증한 사람이나 알아이고 다른사람의 경계가 아니다. 참 성품은 깊고 깊어 극히 미묘하며 제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따라 이룬다.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다” 하였다.
 덕민대중사 <불국사 승가대학원 원장>

방편의 바다-비유의 가르침

법화경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줄거리 <하>

법화경에는 긴 글로 된 산문(散文)과 짧은 시구로 된 운문(韻文)이 있다. 산문은 장행(長行)이라고 하고 운문은 계송(偈頌)이라고 부른다. 법화경의 형성 과정은 먼저 운문으로 된 계송이 형성되고 뒤에 산문의 자세한 설명에 덧붙여졌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법화경을 읽어보면 먼저 산문에서 그 품의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고 뒤에 운문은 산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부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계송이 앞의 산문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산문에서 다 말하지 못한 부분을 계송에서 보충하기도 하고 계송에 없는 것을 산문에서 보완하기도 한다.
 여기 ‘여래수량품’의 ‘자아게’는 한 역본으로 볼 때 51줄 102구로 되어 있다. 길지 않은 계송이지만, 예로부터 ‘여래수량품’ 또는 법화경 전체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애송되고 있다. ‘자아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계에 상주하시지만, 중생을 위해서 방편으로 없어짐과 불멸을 보이신다고 한다. 석가모니께서 이

세계에 항상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여간 든든한 일이 아니다. 경전에도 중생의 일념 가운데에 부처와 지옥이 똑같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생을 구하겠다는 원력을 가진 부처님, 우리의 아무리 심한 어리광이라도 무한정 받아 주실 부처님이 이 세계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부처의 행을 짓기만 하면 부처가 두 팔을 벌리고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 아니겠는가.
 ‘방편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이 헤아릴 바가 아니라고 설하신다. 그러자 이제까지 자신들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던 소승들은 의문이 생겼다. 지금까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경전입니다. 정식 명칭은 『묘법연화경』으로 제목에 연꽃의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불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들고 지친 말법 시대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법화경』을 수시로 외고, 쓰고, 전하면 인생살이가 한결 출분해될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우울한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에는 빠져나갈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있기에 그 문을 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법화경』 속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중국의 대표적 불경연구가 페이융 교수의 저서 『법화경 마음공부』를 중심으로 편집부에서 정리해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지 석가모니께서 소승법을 가르쳐오시다가 왜 갑자기 성문과 연각이 알지 못하는 경지가 있다고 하시느냐는 것이다. 사리불은 대중을 대신해서 석가모니께 여쭙지만, 석가모니는 계속 “그만 두라.”고 하신다. 모두 말하면 대중이 놀란다는 것이다. 사리불이 세 번 대중

연각, 보살의 일을 보이신다.
 자기의 불신이란 석가모니 자신을 말하고, 남의 불신이란 약사여래, 아미타불, 과거칠불 등과 같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누시는 부처의 몸을 뜻한다. 무량겁전에 성불한 석가모니 자신이 여러 부처님의 몸을 보이시지만 본래의 부처는 자신이라는 뜻이다.
 또 석가모니는 성불하셨다고 해서 부처의 경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구계에도 관심을 갖고 몸을 나누신다. 석가모니는 죽는 일이 없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면, 집짓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죽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한다.
 석가모니께서 위대한 것은 부처나 열반에 한가롭게 머물지 않고, 남의 일 즉 부처의 일이 아닌 중생의 일을 하고자 중생 세계로 걸어 나오셨다는 점이다. 무량겁 전에 이미 성불하신 석가모니가 가버라 성에서 태어나 다시 수행하고 성불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그가 중생 세계로 걸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화경의 핵심 ‘자아게’...상주불멸 석가모니 우리는 ‘본래성불’이라 바로 부처 될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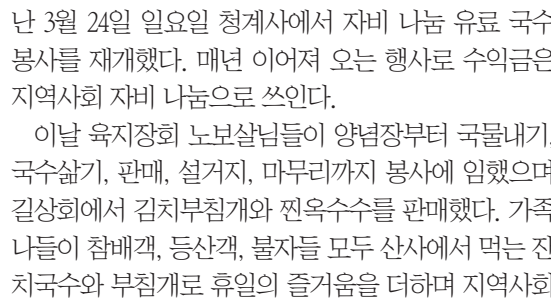
의문에 대한 풀이를 청하고 석가모니께서 세 번 말하셨다고 해서 ‘삼청삼치(三請三止)’와 대비되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불신(佛身)을 설하신다. 혹은 자기의 불신을 보이고 혹은 남의 불신을 보이신다. 혹은 자기 부처의 일을 보이고 혹은 다른 구계(九界) 즉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뉴스&뉴스

2월 초하루



지난 3월 24일 일요일 청계사에서 자비 나눔 유료 국수 봉사를 재개했다. 매년 이어져 오는 행사로 수익금은 지역사회 자비 나눔으로 쓰인다.
 이날 육지장회 노보살님들이 양념장부터 국물내기, 국수삶기, 판매, 설거지, 마무리까지 봉사에 임했으며 김상희에서 김치부침개와 찐옥수수 판매했다. 가족 나들이 참배객, 등산객, 불자들 모두 산사에서 먹는 잔치국수와 부침개로 휴일의 즐거움을 더하며 지역사회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이 행사는 24일 시작으로 다섯 번에 걸쳐 매주 일요일 개최되며 청계 자비 나눔 봉사단이 순번을 정해 봉사에 임한다. <글 심대덕님>



가자 심어요!
 지난 3월 18일 총신대회 주관으로 청계사 봉사단 육지장회, 무여회, 관음회, 진여회, 김상희가 일 년 동안 사찰을 찾은 불자와 신도, 등산객들의 무료 공양 재료가 될 감자 심기 울력에 동참했다.
 줄줄이 이랑을 만들어 두둑에 비닐로 바닥을 덮어 구멍을 내고 씨감자를 심었다. 올 해도 좋은 수확을 기대한다. <글 주향진님>



출가 ~ 열반 재일 8일 정진기도
 3월 17일(음 2월 8일) 부처님 출가제일을 맞아 전각과 야외법당에서 사시 예불과 부처님의 출가하신 뜻



을 새기며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 기도를 임해하고 3월 24일(음 2월 15일) 열반제일에 8일간의 기도 정진을 회향했다.
 고귀하신 신본과 부를 버리고 위없는 깨달음의 길을 떠나신 부처님의 대원력 출가는 생로병사를 가진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된다. <글 서용화님>



초파일 연등 달기
 청계사에서는 초파일이 다가옴에 따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세우고, 부처님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 연등 달기 울력이 진행됐다.
 수미단과 와불전에 아름다운 수를 놓듯 등 달기에 신도회, 진여회, 무여회 봉사단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연등 문화의 축제를 즐기기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루였다. <글 황청방님>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고 대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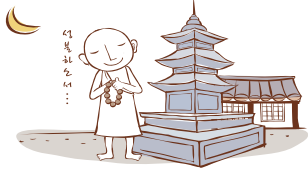
—증일아함경



마음밭에 무얼 심지? 중에서

자동차 정비사의 두 제자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118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지장성지 ④ 향일암

향일암은 1,300여년전 선덕여왕 13년(불기1671년, 서기644년) 원효대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현재의 관음전 자리에 원통암(圓通庵)이란 이름으로 창건하신 사찰이다. 북방(선 불교)과 남방(경전 불교)의 불교를 합쳐 선교 합종을 이룩한 원효대사(617~686)는 요석공주와 3일간의 애정의 결과로 설총을 잉태시키고 과계했다는 허전한 마음을 가늘 길 없어 만행에 나섰다가 깨(들깨)가 많은 포구, 현 임포마을)에 다다랐다. 바다의 비릿함도 없고, 겨울이면 아름다운 동백이 피고, 사시사철 숲이 울창하여 한겨울의 거센 바람도 막아줄 수 있는데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나가셨다는 세존도가 바라보여 기도처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생각이 없어 되돌아 나오다가 아쉬워 돌아보니 거북이 바다로 들어가는 형세임을 보고 바위마다 거북 등처럼 생긴 문양이 있던 것이 생각나 거북이 소변볼 만 한곳을 찾아보니 샘물이 있어 암자를 짓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던 중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암자 이름을 원통암이라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그 후 고려 광종 9년(서기 950년) 윤필대

사(潤筆大師)께서 원통암의 형세를 보시고 금오암(金鰲菴)이라 개명하고, 조선 숙종 41년(1715년)에 돌산 주민들이 논과 밭 등을 시주하여 인목 대사가 관음전 아래에 대웅전을 짓고 금불상을 조성 봉안하고, 해를 향하는 암자, 대일여래(비로자나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의 향일암으로 개명 하였다. 1949년에 편찬된 여수지에 의하면 '백년전에 지금 이곳으로 옮겨 건축하고 기해년에 이름을 향일암(向日庵)으로 바꾸었다. 암자가 바위 끝에 붙어 있고 계단 앞은 비람인데, 동쪽으로 향하고 있어 일출을 바라볼 수 있어서 향일(向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한다. 현종 13년(서기 1849년) 잠간 책육암(策六庵)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 책육암에는 수행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여섯 가지 경계심이 들어 있습니다. 책육이란 육근(六根), 즉 눈과 귀, 코, 입, 피부, 뇌의 옳지 못한 행위를 경계하라는 뜻이다. 이것은 또 거북신앙과도 연결이 된다. 거북은 네 다리와 목, 그리고 꼬리가 있다. 이를 합하면 여섯이 된다. 사람의 육근을 여기에 비유하여 거북이 위급할 때 이 여섯 가지를 모두 감추고 몸을 사리는 것처럼 우리도 조심해서 수행하라는 뜻이다.

동쪽으로 향하고 일출을 바라볼 수 있어 향일(向日) 수행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여섯가지 경계 책육암

일제 강점시기 경봉 스님께서 이곳에서 주석하실 때 향일암 근처의 기암괴석들에 거북 등 무늬의 육각 문양이 있는 걸 보고 영구암(靈龜庵)이라 하였다. 1925년에는 최칠룡(崔七龍) 스님께서 산신각, 칠성각, 취성루, 의랑을 건립하였고, 1961년에는 박영주(朴永柱) 스님께서 전경으로 소실된 법당과 몇몇 전각을 중수 하였다. 또한 1970년 4월에는 박천수(朴千壽) 스님께서 취성루를 개수하였고, 1984년에는 종건 큰스님께서 종각과 칠성각을 중창하였고, 1986년에는 대웅전, 1987년에는 삼성각, 1990년에는 용왕전, 1991년에는 관음전을 각각 중건하였다. <정리 황형량님>



전설에 의하면 관세음보살님이 거북이 등처럼 생긴 문양인 암자를 찾아 세웠다는 향일암.



성행스님의

원각경 강설(19)

대승불교(大乘佛敎)의 궁극적(窮極的) 경지로 불리는 '원각경(圓覺經)'은 중생 누구나 원각(圓覺)을 갖추고 있으며 그 원각(圓覺)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명(無明)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실천 체계를 제시한다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경전이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비롯한 열두 명의 보살과의 대화를 통하여 경이 이루어진 까닭에 12품으로 나누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하깨비 같은 무명(無明)을 여의고 진실하고 뚜렷한 부처의 깨달음에 들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원각경' 공부를 통하여 마음의 번뇌를 비우고 또 비워서 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열반의 가르침에 함께 할 것을 발원합니다. <편집자 주>

제3장 보안보살장(9)

* 3-15 중생이 본래 성불이니

善男子야 此菩薩과 及末世衆生이 修習此心하여 得成就者는 於此無修어 亦無成就니 圓覺이 普照하여 寂滅이 無二라 於中에 百千萬億阿僧祇 不可說恒可沙諸佛世界가 猶如空華의 亂起亂滅하여 不即不離하며 無縛無脫하니 始知衆生이 本來成佛이며 生死涅槃이 猶如昨夢이로다

* 講說

부처님은 보안보살과 미래 말세 중생에게 어떻게 해야 원만한 각성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다시 말씀합니다. 그것은 결국 마음을 닦아 익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으면 성취할 수 있고, 최후에 마음을 밝혀 건전한 뒤에는 닦음도 없고 성취한 바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덕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자리에 있습니다. 중생이 본래 성불하였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마치 어젯밤 꿈과 같다는 것을 비로소 안다는 것입니다.

* 3-16 일체가 어젯밤 꿈과 같으므로

善男子야 如昨夢故로 當知生死와 及涅槃이 無起無滅하며 無來無去하여 其所證者도 無得無失하고 無取無捨하며 其能證者도 無作無止하고 無任無滅이라 於此證中에 無能無所하여 畢竟無證하며 亦無證者하여 一切法性이 平等不壞니라 善男子야 彼諸菩薩이 如是修行하며 如是漸次하며 如是思惟하며 如是住持하며 如是方便하며 如是開悟니 求如是法하면 亦不迷悶하리라

* 講說

'생사와 열반이 마치 어젯밤 꿈과 같다' 는 부처와 중생이 돌이 아니므로 열반이 생사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중생이 부처이므로 생사가 열반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중생이 부처이므로 생사가 열반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사가 어젯밤 꿈과 같고, 열반이 곧 생사이므로 열반도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방법에 따라서 천천히 수행하여 가기만 하면, 가는 물줄기가 길이 흘러가듯이 하면, 언젠가는 깨우칠 날이 있다.' 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토록 자비롭게 중생을 위안하여 주며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사찰음식 배워보기 열무된장 오이겉절이

*재료: 열무1kg, 오이1개, 흥고추1개, 소금1/2컵 양념(된장 2T, 고춧가루 1/2T, 매실효소 1T, 식초1T, 참깨1T)

*만드는 법

- 1.다듬은 열무는 소금으로 주물러 씻은 뒤 물기를 꼭 짜고 칼등으로 자 근자근 두드려 4cm 길이로 자른다.
- 2.오이는 소금으로 문질러 씻은 후 어슷하게 썬다.
- 3.흥고추는 깨끗이 씻어 채 썬다.
- 4.양념장에 오이를 먼저 섞은 후 절인 열무와 흥고추를 넣고 버무린다. <정리 주향진성>



61년에 즉위하 문무왕은 7년 후에 군사를 거느리고 김인문 김흠순 등과 함께 평양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당나라 장수 이적은 고구려의 보장왕을 잡아 당나라로 돌아갔다. 이때 당나라의 유격병과 여러 장병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장차 신라를 공격하려 했으므로 문무왕이 알고 군사를 내어 먼저 공격했다. 그다음 해에 당나라 고종이 김인문 등을 불러들여 꾸짖었고 곧 김인문 등을 옥에 가두고 군사 50만 명을 훈련하여 설방으로 장수를 삼아 신라를 침공하려고 했다. 이때 의상 법사가 유학하러 당나라에 갔다가 김인문을 찾아 만나 그 사실을 들었다. 의상법사는 돌아와서 문무왕께 아뢰니 왕은 몹시 두려워하여 여러 신하를 모아 놓고 대책을 강구했다. 이때 각각 김천존이 말했다. "요즘 명량 법사가 궁중에 들어가서 대단한 비법을 배워왔다고 하니 그를 불러 대책을 물어보십시오."

민족 '혼' 자주성 기록

삼국유사 속 불교이야기

7) 신라 문무왕

이에 명량 법사를 불러 대책을 물으니 명량이 말했다.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 있으니 거기에 사천왕사를 짓고 도량을 열

당군을 몰아내고 동해의 용이 되다

면 좋겠습니다." 그즈음 정주(경기도 개풍군)에서 수많은 당나라 군사가 우리 국경 바다 위를 돌고 있었다. 왕은 다시 명량을 불러 물으니 "여러 채색의 비단으로 임시로 절을 만들면 해결될 것입니다."는 답을 들었다. 이에 채색 비단으로 임

시로 절을 만들고 풀로 다섯 방위마다 신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유가 종의 스님 12명으로 하여금 명량 법사를 우두머리로 하여 문두루(文豆婁)의 비밀스런 주문법을 쓰게 했다. 그때 당나라 군사와 아직 교전하기 전인데, 바람과 물결이 사납게 일어나서 당나라 군사는 모두 물속에 침몰되었다. 그 후에 절을 고쳐 지었고 사천왕사라 하여 지금까지 그 도량이 없어지지 않았다.

문무대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0년 만인 681년에 세상을 떠나 유언에 따라 동해 가운데의 큰 바위 위에 장사지냈다. 대왕은 평상시에 지의 법사에게 말했다.

"나는 죽은 뒤에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어 불법을

우러러 받들어 나라를 수호하려 하오."

"용은 짐승의 응보인데 어찌 용이 되신단 말입니까?"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싫어한 지가 오래되오. 만일 추한 응보로 내가 짐승이 된다면 이 또한 내 뜻에 맞는 것이오."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청계사 살법전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문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 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청계사)

※ 차량안내

미가참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임춘, 초파일, 칠석, 등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2023년 결산총괄표

Table with 2 main sections: '세입' (Income) and '세출' (Expenditure). Each section has columns for No., 관 (Category), 관 (Item), 예산액 (Budget), 결산액 (Actual), and 증감액 (Change). Total income is 1,373,616,640 and total expenditure is 1,300,868,629.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4년 3월 1일 ~ 3월 31일까지)

Summary table of donations. Columns include 구분 (Category), 금액 (Amount), and 전월이월금 (Carry-over). Total income is 2,281,700 and total expenditure is 3,047,835.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31일)

List of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Includes categories like 직접후원 (Direct), 자동납부 (Automatic), and 물품후원 (Goods).

물품 후원

List of donated items: 파리바게트-빵, 임유경-빵, 사과, 천혜향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마스크, 등안양여성평생사랑회-빵, 전문권-딸기, ㈜솔루션-소화기, 의왕시청-마스크, 정현성-사과, 조점아-과자, 대한적십자시외화회-빵, 호두과이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도반

산수유가 피더니 개나리가 피고, 벗꽃과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트리며 여기저기 꽃들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봄은 생기가 도는 것인가? 스님들이 공부 끝나면(解制) 바랑을 메고 여기저기 또 다른 나(我)를 찾기 위해 떠난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도반(道伴: 승가에서는 도반이라 하며 속가에서는 친구나 벗을 의미한다)도 만나고 향기로운 차(茶)를 마시며 어울린다. 언젠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카족의 사가라 마을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때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쭙는다. "세존이시여!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다운 벗을 사귀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거룩한 도의 절반은 이미 성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어떠한지 벗을 사귀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도의 전부를 이룬다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상응부경42-2) 이렇듯 우리 승가에서도 도반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속세에서는 더욱더 진정한 참다운 벗이 소중하고 필요할 것이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진정한 가치의 보배는 바로 소중한 친구인 것이다.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구절이 있듯이 진정한 벗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 만들어지는 원천인 것이다. 지금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을 대한다면 더 큰 이익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더 큰 이익을 가지려면 상대방을 도와주고, 그 상대방을 자기의 벗으로 생각



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진정한 벗은 누구인가?

불퇴전 신심으로 정진하는것 평생의 벗

요?"라고 물으니 "아난다야!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 우리들이 참다운 벗을 사귀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 거룩한 도의 절반이 아니라 진실로 그 전부를 이룬 것이다. 참다운 벗을 사귀고 그들과 함께 있는 비구들은 거룩한 팔정도(八正道)를 배우고 닦아서 마침내 성취하려하는 것을 기약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이 거룩한 도의 전부를 이루는 것이다. 아난다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으리라. 사람들은 나(釋迦)를 참다운 벗으로 사귀어주려 하여 할 몸이 면서 늙음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병들어야 하는 몸이 면서 병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으며,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면서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아난다야! 이 말을 생각하면 참다운 하고 정성을 다 할 때 상대방도 당신을 진정한 벗으로 생각할 것이다. 일생에 있어 단 한명의 진정한 도반, 벗, 친구가 있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다. 나무와 꽃의 친구는 누구인가? 그것은 물과 태양일 것이다. 나의 진정한 벗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함께 고통을 같이 하며 마음을 알아주는 상대방이 바로 진정한 벗이 아닐까? 완연한 봄이다! 삼라만상이 새로운 옷을 입고 많은 생물이 꿈틀거리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도 다시 하심(下心)하며 새로운 각오로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진정한 벗은 누구인가? 그 답은 불퇴전의 신심(信心)으로 정진(精進)하는 것이 평생의 벗이라라.

생활의 지혜

· 주방의 찌든 때: 부엌칼 등의 얼룩이나 녹은 알루미늄 호일을 문지르면 닦아내면 새것처럼 깨끗해진다.
· 옷 흠 자국은: 옷에 흠이 묻어 배면 세탁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다. 이때 흠을 깨끗하게 털어낸 후 감자를 잘라 그 자리에 문질러준 후 세탁을 하면 깨끗하게 세탁이 된다.
· 빨판 성능을 높이려면: 흡착형 고리의 빨판 성능이 떨어졌을 땐 뜨거운 물에 1~2분 담근 후 사용하면 된다. (정리 황창량님)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로376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달의 후원금

금 2,281,700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하지 않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 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분은 녹향원: 031)426-6698

청계사: 031)426-2348, 222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녹향원 자원봉사 명단

용화사보현회, 한예람, 유병남, 김정희, 백연이, 김정희, 이은영, 권동연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운(運)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끼의 지혜

(정리 정자비님)

Table with 12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쥐띠 (Rat), 호랑이띠 (Tiger), 용띠 (Dragon), 말띠 (Horse), 원숭이띠 (Monkey), 개띠 (Dog), 소띠 (Ox), 토끼띠 (Rabbit), 뱀띠 (Snake), 양띠 (Goat), 닭띠 (Chicken), 돼지띠 (Pig). Each column contains a brief fortune or advice for that sign.